

장일범의 '극장 없이는 못살아'



위대한 독학 피아니스트 브렌델을 추모하며

클래식 음악계에는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이 참 많다. 그 많은 음표를 외워서 콘서트홀에서 틀리지 않고 완주하는 것만 해도 늘 경이로운데 그런 연주자들 중에서 해석과 터치가 특별하고 세계의 많은 클래식팬들에게 찬사와 갈채를 받는 위대한 연주자로 우뚝선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영감과 예술적 경험을 청중에게 선사하는 존재들이 있으니 바로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 에밀 길렐스, 마우리치오 폴리니, 예브게니 키신 그리고 우리의 젊은 아티스트 조성진, 임윤찬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여신 뮤즈처럼 청중에게, 음악감상자들에게 귀의 황홀로 행복한 만족감을 주는 예술가들이다. 한국 악기의 백악지팡이 거문고라든 서양악기의 백악지팡이는 바로 피아노다. 피아노 한 대로 모든 악기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수많은 감정을 잡아내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유학하던 시기 음악원은 피아노과를 위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침 일찍 연습실을 잡으려고 해도 대부분 연습실을 선점하는 건 피아노과 학생들의 몫이었다. 가장 먼 처와서 연습실을 선점했고 이 친구들은 하루 원종일 연습량으로 연습을 계속 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역대 우승자 등 러시아 국위선양에 1등 공신들이던다가 워낙에 훌륭한 피아니스트의 전통과 계보가 있다 보니 모스크바 음악원도 늘 피아니스트들에게 특별대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다.

그런데 최근에 임윤찬이 한번 연습실에 들어가면 화

장실에도 가지 않은 채 9시간을 나오지 않고 계속 초인적으로 연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청중을 흥분시키고 큰 감동을 주는 연주자 그냥 나오는데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독공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알려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다.

이런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중 세계 클래식 팬들의 존경을 받는 명망높은 거장 알프레드 브렌델이 지난 6월 17일 94세를 일기로 자택 런던에서 세상을 떠났다. 1931년 체코 태생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니스트로 꽃을 피웠다. 그는 "16세 이후에는 피아노 스승이 없었다"고 했는데 대신 피아니스트 에드빈 피셔 마스터 클래스에 참석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음악적 성과와 명성을 독학으로 이뤄낸 그는 "홀로 발견해나가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스승의 가르침과 방향성 제시가 가장 절실히보이는 청소년기에 브렌델은 홀로서기를 한 것이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스승없이 혼자서 피아노를 공부해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장점은 확실하게 있었다. "나는 피아노 학파를 믿지 않는다"는 브렌델의 이야기처럼 스쿨이라고 하는 프랑스 학파, 독일-오스트리아 학파, 러시아 학파 이런 규정에 함몰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취사선택해서 자신의 것을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주를 브렌델은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빈에 정착한 이후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같은 빈 고전주의, 낭만주의

초기의 한정된 작곡가와 레퍼터리에 천착한 그는 특히 슈베르트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렸다. 이 레퍼터리들을 반복해서 공연하고 녹음해서 음반으로 발표했으며 두려움 없는 차가울 정도의 이지적이고 감정이 과장되지 않는 분석적인 연주를 들려줬다. 아무도 하이든과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주요 레퍼터리로 삼지 않았을 때 그는 이 레퍼터리들로 자신의 굳건한 공전을 세웠다.

2021년에 프라하에 이마에스트리 공연을 하러 갔다가 브렌델의 마스터클래스에 참석했다. 브렌델 90세 생일을 기념하는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 마스터클래스였다. 체코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트리오 인첸디오는 많이 흔하던 만신장이가 되었지만 트리오도 나도 정말 많이 배웠다. 90세의 연세에 귀도 정말 좋으셨고 몸은 불편했고 펜데믹 기간이었지만 엄청난 열정으로 중간 약간의 인터미션을 제외하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악장부터 4악장까지 한 프레이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꼼꼼하고 꼬장꼬장하게 트리오에게 진정된 슈베르트 연주를 요구했다. 제일 재미있었던 건 "누가 너한테 그렇게 연주하라고 이야기해줬니?"라고 반복할 땐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체코 출신인 그는 직접 피아노로 들려줄 수는 없었지만 언어로 체코 청년 음악가들에게 음악적인 영감과 자신의 깨달음을 더 많이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진심이 느껴졌다. 이제 그는 타계했지만 많은 피아니스트와 음악팬들의 영원한 스승으로 남을 것이다.

<음악평론가>

의료칼럼

'깨어 있는 꿈' 기면증



이창준 퍼스트 이비인후과 원장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어요. 아무리 꼭 자도 수업 중 눈이 저절로 감겼죠.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도, 친구들과랑 웃다가도,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정신을 잃듯 잠이 들더라고요."

올해 22세인 복부 증인 김 일병은 오랜 시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졸음과 싸워왔다. 처음에는 게으르다는 오해를 받았고 우울증을 의심받기도 했다. 수많은 병원을 돌다 '기면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증상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난 후였다.

기면증(Narcolepsy)은 단순한 '잠 많음'이 아니다. 기면증은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의식과 수면의 경계가 무너지는 신경계 질환이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주간과다졸림증. 낮 동안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반복되고 깨어 있으려는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잠이 든다.

심한 경우에는 식사 도중, 대화 중, 운전 중에도 순간적으로 수면 상태에 빠진다. 이로 인해 직업, 학업, 대인 관계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 다른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탈력발작(cataplexy)이 있다. 강한 감정(웃음, 놀람, 분노)을 느낄 때 갑자기 무릎이 꺾이거나 턱이 빠지는 것처럼 근육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리는 현상이다. 국내 기면증 환자 중 탈력발작을 경험하는 비율은 약 20-35%로 해외보다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단순한 피로나 과로로 오인되기 쉬워 기면증 진단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기면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하이포크레틴(hypocretin, 또는 orexin)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결핍이 지목된다. 이 물질은 각성과 수면, 식욕을 포함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자가면역 반응으로 이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하이포크레틴이 거의 분비되지 않게 되면 뇌는 깨어 있어야 할 상황에서도 수면 상태로 전환되어 버린다.

해외에서는 뇌척수액을 통해 하이포크레틴 농도를 측정해 진단을 보조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검사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수면검사 결과에 의존해 진단이 이루어진다.

기면증은 다른 질환과 혼동되기 쉬워 진단이 평균 6~8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수면 부족이나 우울증, 불면증으로 오인되기 쉽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PSG)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라는 두 가지 전문 수면검사가 필요하다. 수면다원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동안

뇌파, 근전도, 호흡, 안구 움직임 등 수면의 질과 주기를 정밀 측정한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낮 시간대 졸음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검사로, 다음 날 아침 두 시간 간격으로 4~5회에 걸쳐 낮잠을 유도하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렘수면의 출현 여부를 확인한다. 기면증 환자는 낮에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렘수면에 진입하는 특징을 보인다.

기면증은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을 조절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는 가능하다. 낮 동안의 졸음을 완화하기 위해 모다피닐(Modafinil) 같은 각성제 계열 약물이 사용되며 탈력발작이나 수면마비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우울제나 옥시베이트(Sodium Oxybate) 계열 약제가 효과를 보인다.

특히 기면증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희귀난치질환(질병코드 G474)으로 정확한 진단 후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이 10%로 경감되어 고가 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 외에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 계획된 낮잠, 수면 환경 개선 등의 생활 관리 전략이 병행되면 도움이 된다.

기면증은 잠들고 싶지 않아도 잠에 빠져버리는 병이다. 이 질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의료적 지원, 제도적 배려(예: 직장 내 유연 근무제, 학교에서의 시험 시간 조정)가 절실하다. 환자들이 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깨어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행정옴부즈만의 힘

기고



김해룡 광주시 행정옴부즈만 위원

옴부즈만 (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대리인'을 뜻한다.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신문고나 암행어사 제도처럼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해결해 주던 전통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복을 두드려라"라는 신문고 정신은 오늘날 행정옴부즈만 제도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흔히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이다.

"공정한 심판은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닌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하버드의 지성 마이클 샌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언급된 문구를 떠올리며 공공기관의 행정과정을 감시하고 시

민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옴부즈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행정은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해져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수 시민, 사회적 약자, 또는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쉽게 묻히기 마련이다. 그래서일까. 행정옴부즈만은 바로 이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시민이 행정의 벽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 억울함, 불합리함을 외면하지 않고 법률, 세무, 건축, 행정 등 다양한 전문 옴부즈만이 함께 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고질적 민원, 불합리한 제도에 따른 불편, 소극행정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은 행정옴부즈만의 조사와 권고를 통해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특히 행정옴부즈만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권익구제와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필자가 3년여 전부터 광주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곁에서 봉사해 오고 있다. 퇴직 후에도 행정의 현장에 머물며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공직 경험은 행정옴부즈만의 활동에 큰 자산이 되고 있다.

퇴직 공무원으로서 여타 사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변

호사, 세무사, 건축사는 물론 전문 소양을 갖춘 행정인으로 구성·위촉돼 행정의 구조와 절차, 관행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낼 수 있으며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전편에어나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더욱 엄격한 자기 절제와 중립성,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행정옴부즈만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시민 고충 민원은 물론 위원회가 자체 발굴 해결한 시민 공감 사례 몇 건을 소개해 보면 공사·공단 채용 공고시 지원자가 쉽게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 광주공동주택관리 정보망 관련 개선 건의사항, 광주광역시 다자녀 지원 제도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기준 개선 요구 등을 수용한 사례에서 보듯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행정옴부즈만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의 억울함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통해 목소리가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생활 중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옴부즈만을 찾아주시기 바란다.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앞으로도 행정옴부즈만위원회가 신뢰받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

社說

소각장 조성,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길

광주시가 오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최종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소각장 설치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지는 취지인데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어떻게 설득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2016년 상무소각장을 폐쇄한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광역 자치단체다.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후 매립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소각장 설치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듬해부터 입지선정에 나섰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3차 공모 끝에 자치구에서 신청한 6개 후보지 가운데 최종 후보지로 삼거동 일대를 선정했다.

설명회에서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미치는 대기환경, 악취, 토양, 수질 등에 대한 조사 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설사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가 무산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지만 이왕이면 동의를 얻기 위한 방편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첨단공법을 동원해 소각장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짓고 지상에는 주민들을 위한 레저·문화·복지 시설을 배치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이미 안다. 소각장 인접지에 10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영 후에는 매년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20%를 주민 지원기금으로 내놓는 등 금전적 혜택도 많다.

광주시가 경계해야 할 점은 이런 혜택을 강조하면서 요식행위처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5년 후 직면하게 될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등 이곳이 최적지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주민들도 광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설명회에 참석하면 좋겠다.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대책 이번에는 성공해야

광주시 남구가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 대책으로 다리 밑에 터널형 복개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른바 안전터널이다.

구름다리 밑에 터널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추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은 안전터널을 40m 길이로 설치한 후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130m까지 늘려 동물 이동과 경관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기능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석산 구름다리의 높이가 지면에서 최대 37m인데 안전터널이 설치되면 구름다리와 안전터널의 높이 차이가 22m로 줄어 만약 추락하더라도 부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낙폭을 15m 줄여 22m로 했다해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다. 남구는 8월까지 구름다리 아래에 이중 안전

그물망도 설치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든 입장이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1999년 봉선동과 진월동을 연결하기 위해 제석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끊긴 등산로를 복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한때는 명물로 인기를 끌었지만 2017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7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해 '추락 명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수 차례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다리 난간을 중심으로 설치하다보니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이런 대책까지 마련했을까 싶어 비판하는 것도 부당스럽다. 다만 이왕 마련한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었으면 좋겠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다시 한번 최종 계획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제석산에 도로를 내지 않고 터널을 뚫었다면 하는 최초 계획 말이다.

無等鼓

가수 임영웅의 생일인 6월16일에는 전국에서 팬들의 기부 소식이 전해진다. 올해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With Hero) 광주·전남'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16만원을 기부했고 '영웅시대 광주전남'은 광주·전남 지역 백혈병 환우를 돕기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700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영락의 팬클럽 '탁오빠 옆에 보조'는 '호남지역 회원들도 지난해 광주영아 일시보호소를 찾아 물품을 기탁했고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의 팬클럽 '대니롭다'는 물품 기부와 함께 팬페이지에

덕질과 기부

한 리사이틀'에서 따왔다. 임윤찬은 수익금 기부를 위해 노גע런티로 바흐의 '골드베르크변주곡 연주회'를 개최했었다. 사진 한 장 없이 조용히 진행된 기부는 병원 측이 자료를 내려 알려졌고 동참하고 싶다는 팬들의 문의에 병원측은 기부 방법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그것에 BTS의 슈가가 세브란스병원에 50억원을 기부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 청소년의 치료와 사회적 자립을 돕는 '민윤기 치료센터'를 세운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기부금의 규모도 화제였지만 그가 기부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께 했다는 점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는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주말마다 병원측과 함께 개발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음악 선생님'으로 참여해 치료를 도왔다고 한다. 슈가의 기부 소식은 팬들을 감동시켰고 팬클럽 '야미'를 중심으로 일반인 기부액이 하루만에 2억원을 넘어섰다.

예술과 나눔을 향한 아티스트들의 '진심'은 결국 팬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